

종합토론 ○

# “검정소 검정을 활성화시키면서 농장검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”

〈토론자〉

- ▶ 김주수 농림부 축산국장
- ▶ 김철욱 진주산업대학교 교수
- ▶ 박영일 서울대학교 교수
- ▶ 백동훈 전북대학교 교수
- ▶ 이정규 강원대학교 교수
- ▶ 정진국 축기연 종축개량기획과장

- ▶ 이희득 (사)한국종돈경영인회 이사
- ▶ 박만중 (사)양돈산학협동연구회 회장
- ▶ 정종기 출품종돈장협의회 회장
- ▶ 김윤식 (사)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 부장
- ▶ 이정규 경상대학교 교수
- ▶ 손창준 (사)대한양돈협회 제2검정부 과장

● 종합토론 좌장 : 김철욱 교수(진주산업대학교 국제축산개발학과)

○ 손창준 (사)대한양돈협회 제2검정부 과장

- 검정기관은 돼지 검정요령에 의한 검정 실시 및 검정업무의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야 한다.

- 국가단위 개량 체계를 위해서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, 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유전평가 및 농장간 비교 평가가 된다.

○ 김윤식 (사)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 부장

- 검정소 검정을 통한 개량의 효과는 높았고,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·학·연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.

○ 이정규 강원대학교 교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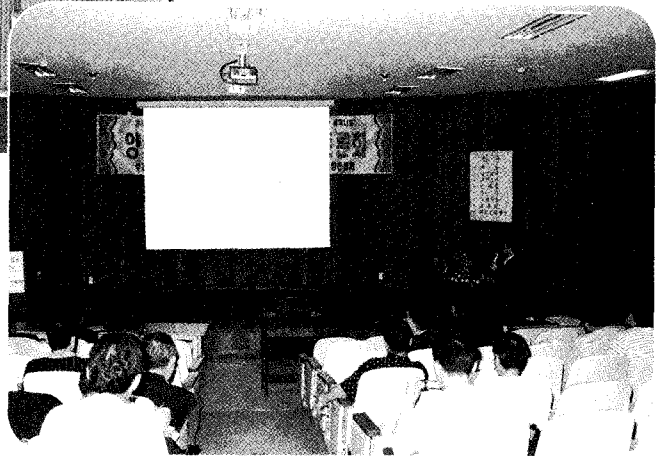
- 검정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생산성 저하우려, 검정장비 및 전문인력 부족, 검정요원의 잦은 이직으로 전문성 부족 → 국가차원에서의 기술적,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

-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PSS유전자 인자를 제거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.

- 검정자료의 공유 :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사이버상의 date 입력, 기술지표 및 생산



◀본회 최상백 회장이 축사를 통해 국내 종돈개량에 검정소가 기여해 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.



지표물 설정 → 농장자체 평가 가능

○박만중 (사)양돈산학협동연구회 회장

- 종돈장들이 외국에서 수입해 온 종돈의 새끼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이제는 국가기관이 우수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종돈장에서 보급을 시켜주고, 종돈장은 비육 농가에 보급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.
- 구입자가 객관성있게 판단하고 구입할 수 있는 곳은 검정소이고, 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을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.
- 종돈의 수입시 질병 유입의 가능성이 높다.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.

○이희득 (사)한국종돈경영인회 이사

- 검정소 검정에서 농장검정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.
- 위생적으로 안전하고, 많은 두수를 검정할 수 있으며, 강선발을 통한 우수 종돈의 선발이 가능하며, 개량의 속도도 빨라진다.

○이정규 경상대학교 교수

- 종돈의 거래관행 : 객관적인 평가체계 미흡하다.

- 유전연결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농장검정 하나만 실시하여 국가단위의 개량, 평가 체계구축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.
- 종돈업 등록 종돈장은 일정 %는 농장검정을 실시하고 상위 몇 %는 검정소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.
- 정부의 강한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.

○정종기 출품종돈장 협의회 회장

- 종돈업 등록 종돈장에 대한 국가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미흡
- 국가 방역 소홀 → 수의과학연구소, 검역기관에서는 신속한 정보의 수집과 대응책의 마련이 미흡
- 전문종돈업 육성 사업이 기초 계획대로 시행이 되어지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 → 자금의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.
- 검정업무의 일원화, 독립성이 부여되어야 한다.

- 종돈장 위생관리 요령에 의한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.

#### ○백동훈 전북대학교 교수

- 검정소 검정시 2두씩 검정을 하기 때문에 사료효율의 계산이 맞지 않다.

- 검정소 검정, 농장검정시 암컷(우)의 선발지수식이 없다.

- 현행 30kg~90kg 검정 → 110kg~120kg검정으로 바뀌어야 한다.

- 농장검정으로는 농장간의 비교평가가 어렵다. 검정소 검정과 병행해서 실시되어야 한다.

#### ○박영일 서울대학교 교수

- 검정소 검정을 통해 사료효율과 등지방 두께의 개량의 효과는 높았다.

- 질병전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생감시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.

- 개량의 핵심부분 → 육중가(검정소 검정, 농장검정 병행) : 유전연결성, 비교, 평가 → 자료의 이용가치 최대화 시킬 수 있다.

### ●방청식

#### ○박창식(본회 회원, 경남 창원)

- 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이 병행해서 실시가 되어야 구입자들의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

#### ○최중대(풍원종축 사장)

- 종돈업 육성 자금의 흐름이 정확한가?

- 일당증체량 위주의 검정은 위생, 균일도, 맛이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. 좀 더 다양한 검정형질을 조사,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개선이 필요하다.

#### ○김주수(농림부 축산국장 답변)

-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산업의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보고, 정책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, 단점 또한 있다고 본다.

- 정부 정책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제도의 틀을 시장 메카니즘에 많이 맡겼는데,

- 전체 토론의 내용이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이 대부분인데, 세부적인 문제는 관계전문가와(축산기술연구소, 농촌경제연구소) 함께 개선해야 할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은 분야별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검토하겠다.

### ●결론

#### ○김철욱(진주산업대학교 교수)

- 국가단위의 개량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검정소 검정을 활성화시키면서 농장검정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가장 적합하다.

- 검정소 시설의 노후화와 전문인력의 부족은 양돈협회의 검토와 보완이 요구됨.

- 우수한 유전자의 보급은 국가기관 산하의 A·I센터를 이용한 양돈농가로의 보급이 바람직하다.

종돈의 거래와 경매는 인터넷상에서 실시하여 질병의 차단과 시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.

- 위생방역차원에서 종돈업 등록된 종돈장의 위생관리, 감독은 농림부에서 철저히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평가하여, 공포하여야 한다.

- 유전적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검정방법의 수정, 보완작업이 필요하다.

- 세계적인 추세가 농장검정으로 전환되고 있고, 이론적으로도 맞지만, 현실적으로는 시간적인 투자가 더 있어야 한다. **양돈**